PVC시트 정체현상“ 심화"

수요시장 악화 사양길 재촉 … PET · PS 등으로 원료대체

국내 PVC시트시장이 경공업 수출부진에 환경문제까지 겹치면서 둔화 · 정체를 반복하는 등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93년 국내 PVC시트 수요는 연질 9만6000톤, 경질 4만2000톤 등 모두 13만8000여톤으로 92년 15만여톤에 비해 1만2000여톤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연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10% 이상 상당폭 감소한 것이며, 이같은 상황은 뚜렷한 수요 다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3년 경질시트 생산량은 럭키 2만여톤을 비롯, 한양화학 1만4000톤, 동성 3000톤,크라운 4000톤, 삼진화학 4000톤 등 모두 4만8000여톤으로 수요 4만2000여톤에 비해 14% 과잉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질시트의 주 수요처인 경공업분야의 경기침체와 10~20%미만의 낮은 리사이클률로 인해 수요둔화 추세가 상당기간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따라 수요대체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며 생산기업 또한 시트원료 대체를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는 93년 압출시트 1라인을 철수했으며 나머지 시트 생산라인도 점진적으로 PET · PS · PP원료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리마켓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변화에도 불구하고 PVC시트 가격은 국제가 상승과 지난4월 PVC생산기업의 10% 가격인상으로 15% 인상돼 일반용은 톤당 150만원, 특수용은 톤당 180만~2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생산능력이 연 · 경질을 합해 93년 22만여톤으로 92년 20만9000여톤대비 1만여톤 증가해 수요정체로 인한 시장악화는 물론,증설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PVC의 타수지로의 대체 움직임은 PVC시트 뿐만아니라 PVC레진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차원의 리사이클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요 격감에 따른 식품용 등 일부 부문에서의 수급파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27>